



제주SK FC 개막 4경기 딱 1점

18일 울산과 2026 시즌 4라운드 홈경기 0-2 완패 개막전 무승부 후 내리 3연패 리그 '최하위' 부진

제주SK FC가 3연패에 빠지며 세르지우 코스타 체제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제주SK는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4라운드 홈 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제주는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 3연패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경기 연속 새롭게 꾸려진 수비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패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연패 탈출을 위해 전반 초반부터 총력전에 나서 전반 14분과 24분 네게바와 이탈리아 잇따라 유효슈팅을 날리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동경을 막지 못하며 잇따라 두골을 내줬다. 후반 3분 이동경의 패스를 받은 정승현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준데 이어 후반 18분에 이동경의 패스에 이은 왼쪽 슈팅을 김동준이 쳐내자 야고가 두 번째골을 성공시켰다.

제주는 만회골을 넣기 위해 오재혁과 유인수를 빼고 김신진과 박민



제주SK FC의 세레스틴. 제주SK 제공

재를 교체하며 울산을 압박했지만 경기는 0-2 패배로 마무리됐다.

제주는 오는 22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강원FC와 5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한국대표팀이 지난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승리로 이끈 뒤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MLB닷컴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스토리 9선' 선정 한국 비행기 세리머니... "마이애미행 목표 뚫뚫"

한국 야구대표팀의 8강 토너먼트 진출이 MLB닷컴이 선정한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핵심 스토리 9선'에 포함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19일(한국 시간) 이번 대회를 관통한 주요 이야기 9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이 매체는 네 번째 이야기로 한국 대표팀의 '마이애미행'을 소개했다.

MLB닷컴은 "한국 야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WBC 준우승 등으로 2000년대 세계 야구를 주도했으나 이후 다소 주춤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빅리거와 한국계 선수들을 한데 모아 2라운드 진출을 목표로 뚫뚫 뚫뚫"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행 전세기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훈련을 칠 때마다 두 팔을 비행기 날개처럼 펼치는 세리머니를 펼쳤고, 더그아웃에선 마이애

미를 상징하는 'M 세리머니'로 주목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8강에서 도미니카에 패하며 2026 WBC 일정을 마무리했다.

MLB닷컴은 이 밖에도 매 경기 전 북을 치며 춤으로 결속을 다진 '우승팀'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이야기와 훈련을 친 뒤 에스프레소 세리머니를 펼친 이탈리아 대표팀, 일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활약상 등을 함께 소개했다. 연합뉴스



18일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 일본과의 경기에서 강채림이 만회골을 넣고 있다. KFA 제공

한국 여자축구 일본에 1-4 완패 아시안컵 결승행 불발... 11경기째 무승

한국 여자 축구의 사상 첫 아시아 정상 도전을 일본이 막아 세웠다.

신상우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18일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강채림(몬트리올)이 득점포를 가동했으나 일본에 1-4로 완패했다.

이로써 결승 진출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첫 우승 꿈을 접은 채 대회를 마쳤다.

한국의 이 대회 최고 성적은 직전인 2022년 인도 대회 준우승이다. 당시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으나 중국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4강 진출로 2027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

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데 만족해야 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는 통산 5번째이자 4회 연속 오른다.

일본은 FIFA 랭킹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8위(한국 21위)에 올라가 있는 강호다.

한국은 이날 패배로 일본과 상대 전적에서 4승 12무 20패를 기록했다. 2015년 동아시아컵에서 2-1로 이긴 이후 10경기째(4무 6패) 승리가 없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2연패를 달성한 2018년 요르단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바라본다.

일본은 전날 '디펜딩 챔피언' 중국을 2-1로 꺾은 개최국 호주와 21일 같은 장소에서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경기후 신 감독은 "전반에 파이브백으로 실점 없이 마무리했다면 후반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선수 수가 많아 포백으로 전환해 승부 보려고 했다"면서 "결승에 가기 위해 승리가 필요하기에 전반에 안정적인 경기를 했고, 후반에 도전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반 실점으로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동광태권스쿨 전국 태권도 남중부 '단체 3위'

제주 동대동광태권스쿨이 제21회 3·15의거 기념 전국 중·고 태권도대회에서 남중부 단체 종합 3위에 올랐다.

지난 7-14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오승철(동광태권스쿨)은 남중부 웰터급 결승에서 이준혁(포항 영신중)을 맞아 2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승철은 앞서 16강에서 박태운(진주중)을 2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고 8강과 준결승에서도 배시현(항도중)과 전은율(천안 성정중)을 2대1로 꺾었다.



남중부 라이트웰터급에 출전한 오승우(동광태권스쿨)는 16강에서 김희준(광양 중동중)과 8강에서 이태건(강원체중)을 2대0으로 제압

했고 준결승에서도 이시우(예산중)에게 2대1로 승리했지만 결승에서 천지원(제천동중)에게 아쉽게 1대2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와함께 여중부 라이트미들급 배연지(동광태권스쿨)가 아쉽게 결승에서 윤지나(고성군 스포츠클럽)에 패해 2위에 올랐고 웰터급 고하은(동광태권스쿨)은 준결승에서 문혜솔(양산여중)에 1대2로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동광태권스쿨은 남중부 단체전에서 금과 은메달 등을 따내며 단체종합에서 예산중학교와 천안북중이 이어 3위에 올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옥룡설산과 리장고성이 완성한 인생 여행지!

여행 영상

▶ 여행 영상 보는 방법 (QR코드 이용 안내)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 화면을 QR코드에 가까이 비추면
-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눌러주세요.

※ 여행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일정표

▶ 사진&일정표 보는 방법 (QR코드 이용 안내)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 화면을 QR코드에 가까이 비추면
-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눌러주세요.

※ 사진&일정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3대의 트래킹 **"차마고도트래킹"**
 해발 3,300m의 천공과 가까운 도시 **"상그릴라"**
 자연이 빛낸 만년설 **"옥룡설산"**
 세계에서 가장 좁고 깊은 **"호도협"**
 운남 최대 티벳사원 **"송찬림사"**
 만년설이 녹아 만든 에메랄드빛 호수 **"람월곡"**
 199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밤의 화려함 **"리장고성"**

제주출발
중국 리장/상그릴라 4박5일 매주(수)-(일) **1,890,000원**

Coem tour TEL. 064-757-4286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종합여행업373호(제주시 1100로 3047,2층)

노소핑/노을선/노립 ※ 성인기준 4명 이상 출발 ※ 연휴기간(선명절/한국연휴기간 등) 요금변동

- 포함사항 : 항공료(제주→상해→리장), 호텔비(2인1실), 전용차량, 전일장식사, 현지가이드비,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개인 비용 및 상급차지

주요 일정 리장고성-호도협-차마고도트래킹-백수대-송찬림사-상그릴라고성-옥룡설산-복수고진

*신청자별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시, 고객의 동의를 받음. 여행장보단게 주의